

이렇게 들었다

효와 노인

“내부모 대하듯 어른 공경하라”

〈부모은중경〉에 보면 부처님이 한우더기의 뼈를 보고 오체투지하여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은 그 뼈우더기 전생의 부모이거나 여러대에 걸친 부모이기에 예배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어른이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자 2일은 우리정부가 지정한 제2회 노인의 날이다. 경전속에 나타난 효와 노인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가를 잘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하느니라. 또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병든 노인이나 나이 많은 노인을 대할 때 마치 내 부모를 대하듯 공경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할 때, 불법승 삼보와 천인, 용이나 모든 선신들이 항상 보호하며, 힘든 지경을 달랠지라도 세세생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야만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자손대대로 많은 복을 누리며 부귀하게 살 수 있다. 〈삼세인과경〉

■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불효로써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 묻는 말에 대답이 불손하고 눈을 부라리며 욕설까지 퍼붓는다. 부모의 헛벗고 배고픔을 모른체하며 저만 잘입고 잘먹으려고 한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나 아귀, 혹은 축생의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부

처와 금강신, 다섯가지 신통력을 지닌 신선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해낼 수 없다.

〈부모은중경〉

■ 늙은 부모를 잘 섬기면 의당 내세에는 제석천(帝釋天)의 공전에 살게 된다. 그리하여 무수한 환희원(歡喜園)이 늘 사면을 에워싼다.

〈대승일자왕소문경〉

■ 늘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쉬는 일 없거라.

〈화엄경〉

■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彼岸)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주수행경〉

■ 마땅히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여 존중해 섬겨서 신(神)인 듯 받드는 생각을 지녀야 하며, 부모의 생각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도 아첨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보리자랑문〉

■ 자식은 마땅히 다섯가지 것으로 부모를 바로 공경하고 바로 봉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은혜를 잊지 않아 오직 보답하며, 가사

(家事)를 오직 닦으며, 부채는 오직 갚으며, 분부는 오직 따르며, 섬기되 오직 기쁘게 해 드리 고자 함이 그것이다. 〈선생자경〉

■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직 일어나 졸음에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밤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두려워하여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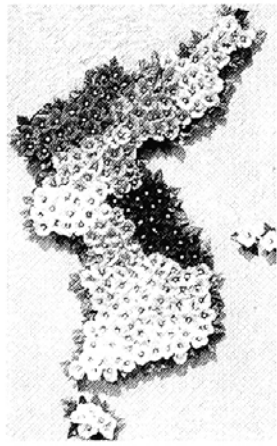
■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재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능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것이며,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서 떨어질 사람이니라. 〈부모은중경〉

‘노인작품전시회’ 전국순회

연꽃마을 주최...3천여점 출품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주최한 ‘노인작품 전시회’가 1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막을 올렸다.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1달간 전국순회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출품된 작품수만도 모두 3천여점. 그 수도 엄청난데 5개월여간 작품을 준비한 노인들의 정성이 돋보였고, 작품 모두가 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감각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보이는 이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게다가 작품 종류도 주름지 공예, 자수 공예, 민속 공예, 매듭 공예, 지점도 공예, 서예, 그림 등 모두 30여종에 달해 마치 생활 주변의 온갖 조형물을 옮겨 놓은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인양로원 노인 60명의 활동적인 주름지 공예작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작품 제작에 참여한 노인만도 연인원 3만여명.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전시회는 3일째 서울에서 열린 뒤, 안양(7~8일, 여성문화회관) 평택(12~13일, 남부문화예술관) 용인(15~16일, 노년복지회관) 대구(18~19일, 안실 3·4동 사무소) 인천(22~23일, 동구노년복지회관) 수원(27~28일, 여성회관) 등 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계속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ha.com)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3일간 1천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은평노인복지관 ‘은빛대축제’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한 노인의 해 기념 ‘은평 은빛 대축제’는 말 그대로 ‘노인들의 잔치 한마당’이었다. 평소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노인들을 위로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교계 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종합축제였다.

행사 첫날인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 노인무료진료에는 무려 1천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셋째날인 30일 치러진 노래자랑과 체육대회, 사회백일장대회는 노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인 이벤트’였기 때문인지 은평읍 복지관 안팎이 노인들의 탄성소리로 채워졌다. 강당에서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70여 노인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5백여 청중들이 연신 박수를 치는 흥겨운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같은 시간, 밖에서는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면서 노래자랑 못지않은 열기를 뽐냈다. 탁구, 포켓볼, 당구 등 실내 종목도 함께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비록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만은 ‘청춘’임을 노인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일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이어 연례인 초정 축하공연, 노래자랑·체육대회 시상식, 민속 대동제 뒷풀이가 이어지면서 5일간의 행사가 막을 내렸다.

한명우 기자

열린마당

은평노인복지관 세미나 ‘고령화시대 노인역할’

1999년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은평 은빛 대축제를 개최했다. ‘새 천년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9월29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성운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산물로 앞으로 전개될 새 천년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역할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제가 대두되어 할 시점’이라며 복지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배영 은평구청장, 노상학 강남대학원장 등은 축사에서 노소가 함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동고동락하는 사회를 형성해 주기를 기원했다. 발표된 4편의 논문들을 지면으로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토론

▲각현소장(연꽃마을 이사장):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의 지표가 된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계·의료·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민정애 관장(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소비적인 노인에서 생산적인 노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학습교육보다 본인의 신상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생활 훈련 및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정화 강사(동국대):주어지는 사회복지에서 본인의 복지라는 본인이 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한 모습이다.

▲임정덕 교수(명지대):이론상에 그치는 노인복지가 아닌 실천적인 복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복지 학계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지표부터 현실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채준안 소장(한국치료리이선협회):여가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여가가 치료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성희 관장(송파노인종합복지관):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인 준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세 등 신설해야”

김동배(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노인복지에 국가가 노인들에게 배려하는 시혜가 아니라 노인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인복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 발행 등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을 위해 노인복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정책입안의 체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인생활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 등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노년연구원’을 설립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노인 사회참여 기구 필요”

정길홍(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장)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구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에도 노인복지과를 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정치 환경 사회 교육 과학기술 의료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 단체 또는 노인사회참여단체를 신설해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노인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자생력 있고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공장 신설 및 노인복지법 시설 종류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도 앞서야 한다. 남북노인교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케어(Care)복지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체계적 운동으로 건강관리”

임미자(이화여대교수·체육학)



고령자에게 정기적인 운동은 혈압유지, 정신건강에 필요한 엔돌핀·에피네프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전신지수성이 떨어져 있어 적은 신체활동시에도 수축기 혈압이 증가된다. 동맥경화의 예비현상으로 보아 누구나 매일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을 가능한 대로 실행하여 건강관리를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전개, 체력검사 혈액 화학적 분석 심전도 개인의 활동 프로그램 계획과 트레이닝의 실시가 요구된다. 건강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노인 건강복지 계획 작성의무화 등의 계획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여가활동은 중년기 부터”

혜 도(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여가는 인간신체의 균형적 건강특성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여러 질병요인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가는 인간의 사회화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간의 평생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는 사회적 가치나 유행의 인식, 타인의 권리와 즐거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리하여 나가는 가운데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가 활동에 관한 기술과 지식은 적어도 중년기까지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해야만 노년기에 이르러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가 활동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중요하므로 낙관적 태도, 자신감,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의 감정을 갖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불교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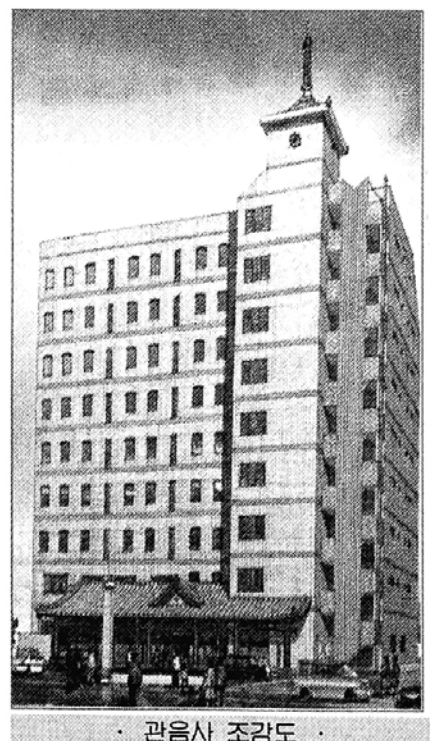
21세기를 맞는 한일 불교 친선의 상징 법회와 판서지방의 일본불교 핵심사찰을 참배하는 행사를 안내합니다.



· 금각사 전경 ·

아 래			
日 字	地 域	時 間	日 程
12월03일 (금)	오사카 교 토	11:55 18:00	오사카 도착후 교토 이동 삼심삼간당 참배후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4일 (토)	교 토 나 라	09:00	조식 후 호텔 출발 금각사, 광릉사, 동본원사 참배후 나라동대사대, 법종사, 약사사, 비조사 참배 석식 및 호텔 투숙
		18:00	
12월05일 (일)	오사카	09:00	조식후 호텔 출발 *관음사 행사 참석 오사카성,신사이사비, 도동 보리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18:00	
12월06일 (월)	오사카	09:00 15:10	조식후 숙소 출발 사천왕사 참배후 공항 이동 오사카 출발

- 가는 때 : 1999. 12. 3 - 12. 6 (3박4일)
 - 가는 곳 : 오사카, 교토, 나라
 - 동 참 비 : 1인당 89만원정 (신청금 20만원 포함)
 - 접수마감 : 1999. 10. 31 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 임조선사 (0344)903-9121 임조스님
원주불교회관 (0371)764-9888 이선행법사
광주연합회 (062) 226-4729 이장국거사
부산남야포교원 (051)761-1908 김중호 법사
제주 (064)757-1622 김매강 보살
제주한라불교 (064)755-2203 조인석국장
서울 평불협 (02)735-5558 이지범 국장
- 수속대행 : 두성관광 (02-730-6100)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관음사 조강도 ·